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	제공일자	2025. 9. 5. (금)
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	정책분석담당관	장찬호 803-5110
	정책연구1팀장	이상욱 803-1541
	담 당 자	김미소 803-5178

박창석 의원, 「대구광역시 만화·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 대표 발의

- 창작 지원부터 인재 양성까지, 지역 웹툰 생태계 기반 마련 기대

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(군위군)이 9월 5일(금),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「대구광역시 만화·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.

박 의원은 “최근 만화·웹툰산업은 드라마, 영화,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”며, “비수도권 웹툰산업 거점센터로 조성 중인 대구글로벌웹툰센터와 연계해 대구가 만화·웹툰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조례안은 △만화·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△만화·웹툰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△만화·웹툰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박창석 의원은 “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,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만화·웹툰이 K-콘텐츠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대구가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